



“윤정부 반노동 정책 속 금속 중앙교섭 역할 중요”

2023년 중앙교섭 시작 ... 전 사업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적용·통상시급 11,000원 등 요구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시작하고, 2023년 임단협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4월 1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을 상견례로 열었다.

사측 교섭대표 박근형 금속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올해 교섭은 작년 교섭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이 든다” 라면서 “사용자협의회와 노조의 교섭위원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아 무난히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박근형 회장은 “올해 금속노조의 요구안 수가 많지 않으나, 내용을 보면 쉬운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수용하는 방법과 수준의 문제였지만, 사용자는 항상 노측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하고 논의해야 타결에 도움이 될 듯하다” 라고 덧붙였다.

박근형 회장은 “중앙교섭 참여 회사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마음에 차는 수준은 아니다” 라면서 “참여 회사가 많이 늘어 중앙교섭 테두리 안에서 교섭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 지부 단위에서



해결하는 요구가 많다” 라고 밝혔다.

노측 교섭대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금속사용자협의회 회장으로 정식 취임한 박근형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발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다. 모든 것이 다 올랐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라며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때문에 노사 간 충돌이 깊어질 수 있다” 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올해 교섭을 쉽게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 라며 “노동자의 요구와 노동조합의 견해를 사용자

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교섭에 응했으면 좋겠다. 노조는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상견례 당부의 말을 마쳤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 19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코로나 19에 따른 추가 교섭원칙을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차 중앙교섭은 사측 주관으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다.

금속노조는 2023년 통일요구로 ▲금속노조 전 사업장,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 차기 년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시급) 적용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 등 두 가지를 걸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000원과 월 통상임금 2,486,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항(7개 항) 신설 등이다.